

<13회 한,일 미래포럼 참가 보고서>

김예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어학과 전공자로서 공부하며 '일본어'라는 학문으로만 일본을 접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본에 대해 배우며 과연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실제 일본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친구로부터 한, 일 미래 포럼에 대해 들었을 때 그 동안 쌓인 고민들을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고 참여를 결심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근 민감한 한, 일 관계의 해소 및 양국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주제가 마련되었다. 필자는 전공을 살려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기에 '한, 일 취업' 파트에 지원했다. 하지만 인원 조정 및 토론의 진행 담당 역할의 배정으로 '한, 일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파트에 참여했다. 평소 큰 관심을 지닌 분야가 아니었고 진행이라는 역할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디어라는 매체의 필요가 요구됨을 느껴 생각을 바로 잡았다. 나아가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 뉴스, 신문 보도와 같은 공적인 매체는 물론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나누며 양국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계획했다.

처음으로 방문한 오사카는 추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무척이나 온화한 기후여서 입고간 롱패딩이 짐으로 느껴졌다. 간단한 환영식을 거쳐 바로 2박 3일 간 함께하게 된 팀원들과 토론을 시작했다. 어색한 자기 소개 후 한, 일 관계 개선 속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테마에 맞춰 문제의 진단 및 보다 구체적인 먼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목표를 정했다. 구체적인 진행 흐름을 정리하면 1.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매체 분석 및 차이 비교 2.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 분석과 문제의 진단 3.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모색의 단계를 거쳤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의 진행 및 발표를 준비했다.

토론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발표의 흐름에 따라 요약해보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소속한 그룹은 양국의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근 한, 일 관계 속 주요 이슈인 '무역 분쟁'의 보도 방식에 주목했다. 양국의 뉴스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객관적인 성격의 정보 전달보다는 이해손실에 발맞춰 여론을 조성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사태 책임의 주체와 향후 전망 및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통해 여론을 긴장시켰고 댓글 등의 반응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 양국 국민들의 자세가 현 한, 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 추측했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의 무분별한 수용을 주요 원인으로 가정, 유튜브와 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반응 모습을 조사했다. 뉴스와 신문이라는 공적인 매체가 아닌 다양한 서브컬처와 SNS매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인식과 반응에 대해 분석하여 현 한, 일 관계를 바라보는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조사 결과 양국의 국민들은 막연한 거부감의 감정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각종 매체 속에서 대중의 호응과 인기를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사용하고 실제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본 정리에 대한 근거가 되리라 결론 내

렸다. 하지만 한, 일 모두 각국의 다양한 문화컨텐츠 (한국의 경우 애니메이션, 일본의 경우 K-POP 아이돌)를 즐기며 이를 통해 양국의 어긋난 인식에 대해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끝으로 진행된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식에 논의하고자 했지만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한계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양국의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한, 일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의 참여 및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포럼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국민이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이어져야만 할 것이라 결론 내렸다.

2박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며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류한 매 순간은 내게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문화, 생활방식 등 눈치채지 못한 양국의 차이를 직접 나눠볼 수 있었고 그 동안 대학에서 배워 온 학문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토론과 발표로 많은 시간을 팀원들과 함께했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며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인연을 쌓은 것 역시 포럼의 장점이었다고 본다. 단순히 친해지는 것을 넘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 일본 친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인연은 내게 정말 귀중했다. 다만 차기 포럼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다. 토론의 테마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모두 한, 일 관계 구축에 있어 민감 혹은 복잡한 주제였기에 토론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부담이 컸다고 느꼈다. 이에 미리 운영 측과 연계해 시간을 들여 토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 사키코 회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과 통역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전하고 싶다.



